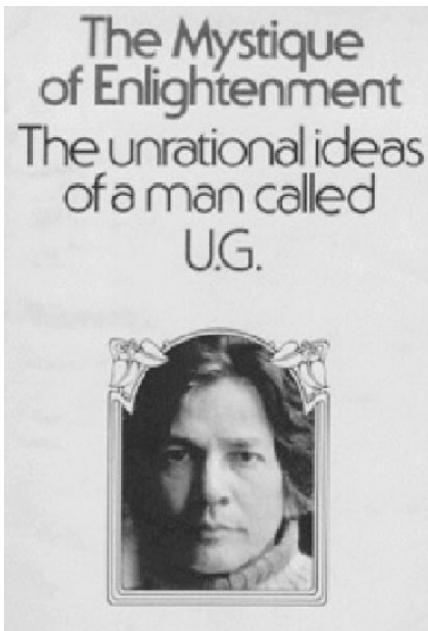


깨달음의 신비

U. G.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7부)

| U.G. 크리슈나무르티 | 노호상 옮김 |

우리의 삶과 현대의 정치·경제·의식은 분리되지 않았으며 과거의 정신적 유산이 현대의 삶에 답을 주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찬양은 의미 없음을 말합니다. 환타지가 아니라 답을 보여주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구루'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7부)

제 3 부

(1980년 인도 미소르Mysore에서 HSK 교수와의 인터뷰)

사람은 개인적인 과거뿐 아니라 전 인류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당신 이전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해왔던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의 목적은 오직 하나, 모든 이가 독특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문화니 문명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를 늘들 속에 가두려고 해왔다. 인간이 전혀 인간답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런 인간을 ‘독특한 동물’이라고 부른다. 문화의 짐을 지고 있는 한, 인간은 독특한 동물에 불과하다.

본성은 가끔씩 자신의 방식으로 인간 진화의 최종 산물인 꽃을 피워낸다. 그런데 한번 피어난 꽃은 진화과정에 이용되어 또 다른 꽃을 피우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인간 진화의 최종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꽃이 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꽃을 박물관에 소장해놓고 구경하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뿐이다.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도 문화

와 프로이드식 사기 위에 건조되어온 심리학적 상부구조물을 흔들어놓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나를 배척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앞으로 일십 년 안에 모든 종교 사업과 심리학 장사가 끝을 볼 것이다.

Q : 오늘날의 세계 위기 상황에서 인도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UG : 세계는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구제하려면 무언가를 게워내야 한다. [세계 질서를 위해서] 뭔가가 있다면 그건 서양에서 시작될 것이다.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기회가 없다.

Q : 서양에 진실된 질문이 존재는가?

UG :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더없이 진실하다. 지금은 저항과 반응의 단계이지만 그들은 답을 원한다. 서양인들은 매우 실용적이라, 답을 원한다. 약속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인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파멸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운명의 예언자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서양에서 비롯되리라 믿는다. 어딘가에서 시작되겠지만 그 나라가 인도는 아닐 것이다.

Q : 확신하는가?

UG : 서양에서 반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신한다. 처음 반평생은 인도에서 살았고, 나머지 반평생은 지금 서양에서 보내고 있다.

Q :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했는가? 인도에서 철학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UG : 여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 편인데 어제는 에머슨Emerson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네 이웃이 신을 믿게 하려면 신이 너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몸소 보여주라. 신을 두고 사랑이니 진리니 이것이니 저것이니 말할 필요가 없다.

흥미롭지 않은가? 신이 당신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세계에’ 보여주라. 집안도 마찬가지다. 가정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인도의 가정은 혼돈에 빠져 있다.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에 뭔가가 있다면(물론 많이 있다. 한 순간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인도는 수많은 현자와 성자, 구세주를 배출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자신의 가정을 바로세우는 데 그런 유산이 소용되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일단 그 점이 하나 있다.

그 다음은 현대적 용어, 새로운 글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양인들은 새로운 용어, 새로운 글귀에 흥미를 느끼고 이끌려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운다. 그러고는 그런 용어들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듯 여긴다. 그것이 전부다. 외국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멋져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도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위대한 유산은 이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왜 도움이 안 되는가? 그것이 나의 질문이다.

Q : 어떤 의미에서 도움인가?

UG : 먼저 경제적 안정이다. 누구나 입고 먹고 잘 곳이 있어야 한다. 인도의 가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30년 동안 자유 국가였는데 왜 아직도 가난이 계속되는가? 이것이 나의 근본적인 질문이다. 나도 답은 모른다. 답을 알면 여기 앉아서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를 할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황이 그렇다. 반면에 집단적인 행위는 문제를 의미한다. 나의 당, 나의 제도, 나의 기술에 대비해서 당신의 당, 당신의 제도, 당신의 기술로 구분한다. 그렇게 이 모든 제도들이 싸움으로 귀결되어 엉뚱한 데에 에너지가 소모된다.

Q : 이기려 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UG :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기는 것뿐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다. 그게 내가 하려는 말이다.

Q : 국가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가? 정신적 유산은 아무 소용이 없는가?

UG : 나라를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유산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Q : (들을 수 없음)

UG : 나는 같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은 한 계에 도달했다. 지금 그들은 인도를 보고 있다. 그들은 성자, 요기, 스승들을 찾는다. 당신도 초월 명상을 언급했었다. 정말 관심은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검증’해보고 싶어 한다. 그저 말이나 영적 경험, 영적인 판타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원한다. 그것은 ‘세상의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 그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내가 주장 혹은 강조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다. 과학자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기술자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각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것이 먼저다. 성인을 찾아봤자 소용없다.

Q :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UG :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이시대의 '성자'다. 우리의 해결책은 세계의 문제에 전혀 답이 되지 못한다. 일상의 문제에도 답을 주지 못한다. 사람들은 해결에 관심이 있지,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위대한 현자와 성자, 인류의 구세주들이 우리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가?

현자와 성자가 해결책이었다면 질문은 없어졌을 것이다. 질문이 여전하다는 것은 그들이 답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에 제공된 해결책은 진짜 해결책이 아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왜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가?

지금은 개인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 특정 국가가 아니다. 인도도 아니고 미국이나 러시아도 아니다. 개인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개개인이 모두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이다. 개인이 각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인류 전체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엮여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론적

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아직은 아무도 자국의 주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유럽경제연합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결성됐다. 모든 나라가 여전히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것부터 종식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란-이라크 분쟁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쓰지도 못하는 핵모함만 배치하고 있다. 강대국도 세계의 동향이나 사건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강대국도 못하는데 인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디라 간디 Indira Gandhi가 이란에 사절을 파견해서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으나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다른 나라들은 인도를 이용할 따름이다. 아무도 인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인도는 경제, 정치, 군사 분야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다.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한다. 인도는 왜 수소폭탄을 발사하면 안 되는가? 그것이 나의 질문이다. 그런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문제다. 중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말뿐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인도에 관심이 없다. 상황이 그렇다.

인도가 배출한 구루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은 정말이지 환상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혀! 이런 것에 끌리는 사람들은 제 나라의 운명을 인도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Q : 어떻게 해야 우리의 풍성한 유산으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UG : 그것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삶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인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원네스, 삶의 단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다. 그렇다면 빈민가의 존재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불가촉천민 1억 명의 존재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내게도 답은 없다. 다만 우리의 유산이 대단한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지적하는 것뿐이다.

Q :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

UG : 우리는 우리의 기대랄지, 위대한 전통이랄지, 유산이랄지, 뭐라고 부르든, 그것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Q :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유산이 거짓이라거나 우리의 가치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UG :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우리 할아버지가 백만장자였다’는 말과 똑같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할 판에 할아버지가 백만장자였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인도는 위대한 성자, 영적 거물들을 배출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우리의 유산이 그토록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거듭 자축한들 무슨 의미인가? 이 나라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왜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도 문화가 특별하고 위대하다고들 하고, 모두가 영성이나 다르마 등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배출한 위대한 스승은 몇몇에 불과할 뿐, 더 이상은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또 다른 라마누자차리야Ramanujacharya를 보여달라. 단 한 명의 라마누자차리야, 단 한 명의 상카라차리야가 있을 뿐이다. 마다바차리야도 한 사람, 붓다도 한 사람, 마하비라도 한 사람뿐이다. 손가락으로 세도 충분하다.

우리는 지금 구루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구루는 서양의 성직자와 비슷한데 인도는 그런 쪽으로는 자유로운 면이 있어서 누구나 조그만 ‘가게’를 차리고 자신의 ‘물건’을 판다. 그래서 인도에 구루가 그렇게 많은 것이다. 서양에서는 조직화된 종교가 개인의 성장을 파괴했다. 반대 의견을 짓누르고, 인도에서였다면 영적 스승으로 꽃피어났을 개인들의 가능성을 파괴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도는 이런 면에서 자유로워 많은 구루를 배출했다.

이렇게 종교성 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종교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래도 관계없다. 당신들이 말하는 종교적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미신에 불과하다. 단식을 하고 축제를 열고 제사를 지내고 사원에 가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런 스승들은 또 다른 스승을 배출하지 못했다. 불교의 틀 안에서는 또 다른 붓다가 존재할 수 없다. 그 학파 안에서는 또 다른 라마누자차리야가 있을 수 없다.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추종자들끼리 소집단을 형성한다. 그리고 늘 자기들끼리 싸운다. 코끼리를 U자로 써야 한다, V자로 써야 한대로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모든 것이 그런 사소한 문제로 퇴보하고 악화되고 있다.

“인도가 그 같은 걸출한 인물을 또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나라의 모든 이가 이것을 자문해볼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유산이 사람들의 삶에서 작동하는가이다. 세 번째는 그것이 이 나라의 정치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나의 대답은 전부 ‘아니다’이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Q : 두 가지 문제는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UG :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크고 심각한 도피처이

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다. 삶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없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 그래서 서양인들처럼 일요일에만 종교적이 된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고 평일이면 괴물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책을 읽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사람들은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자신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의 의미도 모른다. 나는 매일 아침 찬송가를 듣는다. 찬송가에 흥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고 라디오가 저기 있으니, 라디오를 틀 뿐이다. 찬송가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아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은 포르노이다. 정말이다. 나는 찬송가들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 성에 굶주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로 표출해 여신에다 옮겨 놓았다. 그들은 노래 구절에서 여자의 해부학적인 면을 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에 신비로운 설명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관심 없다. 신비로운 설명은 겉포장에 불과하며,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궁금해하는 일부 사람들을 잠잠히 만들려는 술책이다.

나는 여기서 늘 사람들에게 말해왔다. 사원에서의 황소 숭배와 시바의 숭배는 태초의 인간으로부터 출발했고, 그에게 섹스는 최상의 쾌락이었다. 그후에 지복과 참행복 등으로 옮겨갔지만 원래는 성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십자가도 남근의 상징이다.

교회에서는 포도주와 빵을 준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야만시절에서 베껴온 것이다. 영웅이 죽으면 그의 훌륭한 자질을 물려받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던 것이다. 그런 전통이 세대를 타고 내려온 것이다.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비난

*개인적인 과거뿐 아니라 전 인류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당신 이전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해왔던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유산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이 나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는 같이 간다.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단일체이다. 정치적인 혁명 없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혁명이 있을 수가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길, 변화가 필요하다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 정부에 반기를 들 가능성을 원천봉쇄해버린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국회의원에 당선 되려면 수억 루피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수억을 쓰고 나면 쓴 만큼 다시 벌어야 한다. 그들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나는 이 모든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부를 버리라. 정부가 그것을 하게 만들라. 그러니 정부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왜 정치인들을 비난하는가? 스스로를 탓하라.

Q : 그러나 선출된 정부는 특수 계급이다.

UG : 부자들이다. “내 땅 6천여 평을 담보로 하겠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다. 나는 땅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한도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공산주의자가 권력을 차지해도 나는 잃을 게 없다.

공산주의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정당도 인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할 수 있을까? 신도 인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 인도의 문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 인도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인도가 세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누구보다도 내가 더 황홀해할 것이다. (웃음) 하지만 신도 그렇게는 못한다. 신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신도 할 수 없는 일을 나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너무 힘이 없다. 모든 것을 한번 뒤엎어버리지를 못한다. 그럴 수 있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인도의 문제는 자유를 거저 얻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자유를 위해서 힘들게 싸워왔고 자유를 위해 죽었다. 그것이 정말 문제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던 것이 유감이다. 프랑스나 다른 나라가 인도를 지배했다면 인도는 다른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중국에는 막강한 군사 지도자들이 있다. 인도는 마오쩌둥 같은 지도자를 배출할 수 없다. 인도가 어떻게 마오쩌둥 같은 사람을 배출할 수 있나?

그러나,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공산주의 국가를 모델로 삼는 것은 의미 없다. 인도는 인도 나름의 혁신을 해야 한다. 여기서라면 마오쩌둥은 완전히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니 인도는 독창적인 산물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은 듯하다. 그와 같은 일이 인도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다.

시대가 개인을 배출한다. 인도는 그 당시 간디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간디가 있었다. 영국은 처칠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가 존재했다. 프랑스는 드골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가 있었다. 독일은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가 있었다. 히틀러를 지지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히틀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 독일 전체가 히틀러를 지지했다. 히틀러를 비난하려면, 모든 독일인을 비난해야 한다. 그는 시대의 산물이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영국은 처칠을 물러나게 했다. 영국은 대단한 나라였다. 그들은 처칠이 영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간디 덕분에 인도가 독립을 했다고 믿지 않는다. 세계 정세가 그러했기 때문에 영국이 우호적일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순순히 인도에서 물러났던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었다.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인도를 위해 하는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인도를 비난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안락의자에 앉아서 하는 말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인도에 있는 누구를 반대할 권리도 없다. 인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발견한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종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종교는 죽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무엇을 되살리고 싶은가? 말해보라. 되살릴 것이 없다. 사원을 더 세운다? 무엇을 위해서? 사원은 이미 수만 개나 있다. 사원은 이 나라의 종교적인 복리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예고를 강화할 뿐이다. 또 다른 아쉬람? 아쉬람도, 구루도 너무 많다.

상황이 그런 듯하다.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다. 희망은 있지만 (언젠가는 인도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이 배출될 것이다)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이 나라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이상하다. 인도가 오랜 세월동안 닦아온 숙명론이 오늘날 이 나라의 유감스러운 상황에 책임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U.G. 크리슈나무르티** Uppaluri Gopala Krishnamurti (1918. 07. 09~2007. 03. 22)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 비록 개인의 일상에서 '사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 실체나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한 것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U.G.는 종종 그의 존재 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만일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동시대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홈페이지: 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쇼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